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9월 14일(금) ... (음력 8월 5일) ... Пятница 14 сентября 2018 г. № 36(11680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3일(목) 오전 11시 한국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6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추도 및 유골 봉환 환송식이 거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장 지방 의원으로 재선**

9월 9일 단일 선거의 날에 사할린주에서는 주두마 의원 보궐 선거와 11개 지방자치체에서 의원 투표가 있었다. 예비결과에 따르면 주두마보궐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막심 코즐로브 사할린주수산업체연합회 회장이 43.6%의 투표를 받아 당선되었다. 특히 쿠릴주민들이 그를 선정하였다.

지방자치체 의회 의원 투표는 반반투표(비례투표와 다수대표제 투표)로 이루어졌다. 비례투표로 다수 구역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통합당)>정당이 승리하고 오후구역과 홈스크구역에서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이 다수 득표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카로브향토박물관 관장인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장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었다.

**안산시 문화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공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자매도시인 안산시 문화원(원장 김봉식)의 아티스트들이 이번 도시 136주년 행사에 참가하여 지난 8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신나는 사물놀이, 아름다운 민요와 우아한 무용은 찾아온 관객들에게 흥을 돋구었다.

## 이낙연 총리,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첫 행사로 '한·러 우호친선 간담회' 가져

"한·러 협력 넓어지고 깊어질 것", "사할린 한인 상처 잘 알아"

한국 이낙연 총리는 지난 10일(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한·러 우호친선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리와 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콘스탄틴 보그다네프 연해주 부지사,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장 등 연해주 정부 주요 인사와 재외국민, 러시아 동포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1863년 조선인 열세 가구가 처음 연해주로 이주한 이래 한인들은 남다른 교육열과 부지런함으로 러시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극동개발로 많은 한국기업이 극동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동포 여러분의 용기와 저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연해주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굶주리면서도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싸우시다 한 맺힌 삶을 마쳐셨던 곳"이라며 "후손인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꿈꾼다. 이르면 늦어도 그 꿈은 언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하셨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이 꿈은 이뤄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순옥 사할린 한



인협회장을 언급하며 "사할린 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고통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상처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장, 김경재 연해주 한인회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장의 환영사와 보그다네프 부지사 건배사도 있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 일부 발췌)

## 제6차 사할린강제동원한인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

### 한 많은 세상을 뒤로하고 영면하신 한인 동포분들의 유골을 봉환하는 뜻 깊은 시간

지난 13일(목) 오전 11시 유족, 주정부, 지방정부, 일본 영사, 한인단체 대표를 비롯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행정안전부 주최하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6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추도 및 유골 봉환 환송식이 거행되었다.

이미 6년째 실시되는 유골봉환 사업은 러한 양국 정부, 사할린정부, 사할린 한인단체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한국 정부는 사할린한인 희생자 유해 16위를 봉환했다.

유족단과 행안부 대표단(총 30명)은 8일(토) 사할린에 도착하자마자 한인문화센터 마당에 위치한 사할린동포희생자위령비 앞에서 합동 추모제를 지냈다. 영혼들에게 절을 올린 유족들은 "매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봉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할린의 영혼들께서 굵어 살피주시고 조국이 더욱더 발전하여 가슴속에 맺혔던恨들을 다 풀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란 내용의 축문을 낭독한 뒤 태워버렸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네벨스크, 소콜(돌린스크구역), 리바츠코예(아니와 구역), 마카로브, 크라스노폴리에(우글레고르스크구역) 공동묘지들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을 발굴해 화장하고 13일 추도·환송식을 올렸다.

가장 감동적인 추도사는 아마도 유 가족들을 대표하는 박재일 씨의 글이다. 박정만 아버지 유골을 가져가려고 한 그는 노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대신 그의 부인과 손자 박인기(22)군이 사할린을 찾아야 했다. 유족 추모사는 이날 박인기 증손주가 천천히 읽었는데, 그 내용은 참가자 모두로 하여금 비탄에 잠기게 만들었다. (추모사 3편 게재).

유족 추모사 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허만영 단장은 김부경 행안부 장관의 추도사를 대독하고 사할린주정부 지사실 이성철 차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황명희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아니와행정부 알렉세이 바얀진 대표의 추도사가 있었다. 이들은 유골봉환 사업의 양국 협력 노고를 강조하고 강제동원 희생자 분들이 모든 한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모국에서 잠드실 것을 기원했다.

(3면에 계속)

##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정태랑(77) 어르신은 이번 사할린 방문은 세번째다. 방문 목적은 항상. 강제징용당한 아버지 정봉규 씨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처음 2008년에 사할린을 다녀간 정태랑 씨는 지난 2012년 8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제워크숍에 참가해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때 이 이야기가 기사거리로 되어 본 신문 2012년 8월 10일 호에 게재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강제동원자 흔적, 또는 묘를 찾은 사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서 정태랑 할아버님도 아버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2주 전 한국의 SBS 방송국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정봉규(1918년 10월 16일 생, 경북 선산군 고아면)님을 찾는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촬영팀은 정태랑 어르신을 모시고 100주년을 앞둔 정봉규 응의 행적 알아보기에 도전해 사할린을 찾았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고르노자위드스코예(나이호로)도 가보고 주한인협회에서 정봉규 씨를 알던 분도 만났고,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과 사할린한인모지 조사 결과물도 파악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사할린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아침부터 새고려신문사를 찾은 정태랑 어르신은 필자에게 전에 알아본 정보를 전했다. 정 할아버지에 의하면 아버님이 다카야마란 일본 성으로 사셨고 재혼하고 자녀 2남1녀를 두셨단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셨고 고무신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필자는 고무신공장에서 근무하셨던 이화숙 씨(현 영주귀국)와 연락을 취했는데 그 분 말로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고무신 공장에서 일하신 분과 많이 비슷합니다. 눈매, 얼굴 모양이 비슷하고 일본 성이었는데 정확히 어느 성인지 잘 모릅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집사람의 몸이 안 좋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사할린 강제징용이 시작한 지는 80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서로 생사를 모르는

## 아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 2

### 수십년간 아버지 흔적을 찾고 있는 정태랑 할아버님



정태랑 어르신

이산가족의 사연이다. 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역사의 비극으로 남아있다.

(배순신 기자)

아래에 정태랑 유족의 사연과 한국과 학기술원(KAIST)에서 만든 정봉규 님의 추측 사진들을 게재함.

#### 정태랑님 사연

제 아버지 성함은 정봉규입니다. 아버지는 경북 선산군 고아면 관심리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이 있어서 집 짓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라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근방에 일가친척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1940년에 부모님이 결혼을 하였고 그 다음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징용으로 사할린 탄광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향에도 여러 번 다니면서 친척들이 찾아다녔습니다. 큰외삼촌(김영구)과 막내외삼촌(김영학) 말씀으로는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는데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끌려간 권영환씨, 박조운 씨를 수소문 하다가 그 자제분들과 만났습니다. 본인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쓰비시 계열에 나이호로 탄광에서 일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아버지 소식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권영환 씨는 1990년 경 사할린에서 돌아와 영주 귀국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다면 아버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징용하신 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그때 막내 이모가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함께 살았는데 이모님 말씀으로는 이후에 사할린에 있는 아버지로 부터 편지가 오고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한국전쟁 때 마을이 불타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사진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시기어 다닐 때 끌려갔기 때문에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을 때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초상에 쓸 버드나무를 꺾어 오라는 심부름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자식을 두고 끌려가신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힘겹게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외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돌림도 당하고 외로움을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자립해서 취업을 하고 스스로 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담당하게 그때 일을 이야기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혼자자라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사할린 어딘가에 살아계실 것 같은 생각에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돌아가셨는데 제사도 안지내면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기일인 음력11월 6일에 밤 한 그릇 떠 놓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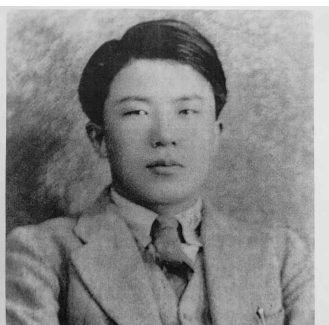


40대

60대

80대

사할린 유족회나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 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OTKIE CЫE ПPИXOДИ CЮДЯ, ЧТОБЬ PЫCКAТЬ TEBE! ЖДУ CИДEНИE! 아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뼈 한 조각이라도 고국으로 모셔서 어머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러시아 정부나 일본정부, 기업이 자료를 내놓아 유골이라도 수습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기록과 유골을 찾기 위해 활동할 생각입니다.

제 인생, 마지막 과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 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픈 가족사를 조금이나마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에 대해서나 나이호로 탄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봉규 님의 행적을 알고 계신 사할린 현지 민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2113-5500

sbs21135500@gmail.com

정태랑 어르신의 사연은 9월 15일(토)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다.

## 이모저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크로스 나치> 경기대회 개최

사할린주에서 진행되는 대중 육상경기대회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일명 "민족 크로스" 달리기운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russiarunning.com 웹사이트에서 참가자 신청등록을 할 수 있다. 사할린주 스포츠관광 및 청소년정책부 예고르 우르노브 차관에 의하면 "스포츠 축제 참가 희망자들이 많아 <크로스 나치>대회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도시들의 거리에서 진행된다. 전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하여도 2000여명의 시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이 행사에 모여들었는데 올해에는 25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주최측은 운동회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을 위해 무용단과 노래악단들의 공연, 군인 밥, 뜨거운 홍차를 비롯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금년에는 행사 후원자들이 생겨 그들도 선물을 마련했다.

행사는 9월 15일 10시 정각 시작되는데 9시30분에 경기 개최 퍼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코스는 연령별 1000미터부터 8000미터까지다.

참가자 번호를 교부받으려면 의료진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 임의의 의료기관의 내과의를 찾아가거나 혹은 주체육진료센터 (하바로브스카야 거리, 29a번지, 전화번호: 8(4242)42-47-12)를 방문해 거기서 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사할린주 스포츠관광 및 청소년정책부 보도실이 알려왔다.

배정된 번호는 9월 10-14일간 10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9월 1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거리, 7번지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 8(4242) 24-20-08, 76-19-13.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Кросс нац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один из самых массовых забег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сс наци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russiarunning.com. .

— Традиционно "Кросс нации" проходит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это связа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с большим числом участников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тарт вышло свыше 2000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ейчас ожидаем не менее 2500 человек, — отмеч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интересную программу: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ых и вок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олдатская каша, горячий чай. В этом году у мероприятия появились партнеры, которые подготовили подарки.

Старт будет дан 15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10:00, в 9:30 состоится парад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истанции от 1000 метров до 8000 метр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артового номера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ъяв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её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люб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у терапевта или обратиться в областной врачебно-физкультурный диспансер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29а, телефон: 8(4242) 42-47-1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ть стартовый номер можно с 10 по 14 сентября с 10:00 до 17:00 и 15 сентября с 7:00 до 9:00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Горького, 7,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телефоны: 8(4242) 24-20-08, 76-19-13.

###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대, 쿠릴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콘서트 개최예정

9월 22-23일간 <사할린 스페스카야 탑>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러시아 군대의 선두적 악단인 러시아 연방 국방성 중앙군악대의 콘서트가 펼쳐질 전망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은 러시아 명예배우인 대령 세르게이 두르긴이다.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2일 11:30 - 장소: 쿠릴스크 지역 중앙클럽 제도 본관

9월 23일 11:00 - 장소: 유즈노쿠릴스크 레닌 광장

9월 23일 19:00 - 장소: 크라보자보드스코예 춘 (<조국의 아침>문화회관)

군악단은 국제축제 행사에서, 그리고 세계 순회공연을 할 때마다 러시아 군악의 전통을 널리 소개한다. 악단은 연주기술력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군악대에 서도 볼 수 없는 조직구조의 짜임새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보컬 독주자들과 전국 및 국제대회 수상자들도 역시 콘서트에 참가한다.

공연은 9월 26일 19시에 <오크짜브리> 영화관에서 열린다. (사할린 필하모니아 웹사이트 보도).

(8면에 계속)

### 유골봉환 사업으로 사할린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사할린한인단체 대표 표창

지난 12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매가 팔라스>호텔 연회장에서 한국에서 온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사할린 주내 여러 기관 대표, 주한인 단체, 언론 등 대표 총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행정안전부 주최 하에 한인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6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사할린한인협회 박창순 코트사코브 이산가족회 회장, 박성도 아나와 노인회 회장, 신연자 홈스크 이산가족 회장, 윤태옥 돌린스

크 한인회장, 마카로브 한인회 김기서 운영위원장,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흥정환 사할린지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안부의 감사패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장례서비스회사 블라지미르 두비닌 사장과 사할린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받았다. 이날 한국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허만영 단장, 유족을 대표해 박인기 청년,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본사 기자)

### 추 모 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 제일입니다. 지난 2010년 이 곳 사할린에 와서 삼촌을 뵈고 아버지 산소에 술 한 잔 올린 후 8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모시러 다시 왔습니다. 해방이 되고 제 나이 다섯 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사할린을 떠난 지 어느덧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나이 스물다섯이었던 어머니는 "먼저 고향으로 가있으면 곧 따라가겠다"는 아버지 말씀만 믿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백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차디찬 땅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사할린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 하나라도 떠올려 보고 싶어 기억을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짧고 어렸던 탓인지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 캄캄한 머릿속을 헤매며 답답한 가슴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평생 슬픔이요,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특히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다니는 것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고 또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여든을 눈앞에 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그림고, 아버지

를 한 번 불러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마음 속 깊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견디며 살아야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집안은 아버지에 이어 삼촌마저 사할린으로 끌려가는 막대한 일을 당하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아픔의 눈물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를 고국으로 모셔가는 이 자리에 서니, 유골이 되신 아버지라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수십 년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평생토록 아버지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신 어머니는 이제 기력이 쇠진하여 함께 오실 수 없었지만,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 생전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저 역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아버지, 아버지!" 크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한 마디에 평생토록 쌓이고 쌓였던 제 마음 속 응어리진 한도 모두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께서 그리워하시던 고국으로 이 아들 품에 안겨 함께 가서서 모든 아픔과 슬픔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고국 품에서 편히 쉬십시오.

2018년 9월 13일  
모든 유가족을 대표하여  
박재일 올림

### 제6차 사할린강제동원한인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

### 한 많은 세상을 뒤로하고 영면하신 한인 동포분들의 유골을 봉환하는 뜻 깊은 시간

#### (1면의 계속)

환송식이 있던 후 유가족들은 유골을 모시고 한국으로 떠났다. 유골을 모신 사담중에서 한국분들이 많았지만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신 분들도 더러 있었다. 봉환된 유골은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14일 안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 3위는 고향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전해졌다. 1958년에 크라스노폴리에에서 돌아가신 박정만 희생자의 유골도 고향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에 모실 예정이다. 알고 보니, 박정만 할아버님의 아내분(99세)이 생존하여 남편의 유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로움과 아픔의 상처는 긴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분은 희생자 한분, 한분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상세히 하여 다 같이 추념하는 자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하기도 했다.



(배순신 기자)

#### (전호의 계속)

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재외동포법의 연혁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재외동포법의 변천

재외동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 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동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 1)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위 표에서 제시하는 현재 재외동포법의 범위를 보면, '재외국민'(제1호)과 '외국국적동포'(제2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재외국민'(제1호)이 왜 재외동포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남아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위한 법이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지가 문제시된다. 둘째, '외국국적동포' 조항은 앞에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동법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동포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과거의 조선 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재외동포이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국적'취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적'을 가진 자는 무국적자가 되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재러시아나 재일본 등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조선적(朝鮮籍)'이라는 무국적자들은 제외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고국에 여행할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은 조선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사가 없다고 하여 여행증명서 발급이 취소된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국적 취득을 강요하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실시되어 왔다. 재일교포정영환 사건; 2010. 9. 28. 2010누3536.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서울 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에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가 '영사관측이 정보씨에게 수차례 국적변경의사를 질문하고, 정씨가 변경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자 경찰청의 신원증명을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여권법상 여행증명서의 발급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선적" 교포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위법", 머니투데이, 2009. 12. 31.

현재 조선적을 보유한 재일교포는 약 7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적'이란 1945년 이후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이나 북한 국적이 없는 것도 선택하지 않고, 일본에 귀화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어떤이는 조선적은 일제만행의 흔적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외국인등록제도상의 국적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무국적자이며, 이와 동일한 경우는 재러시아 등에도 이러한 조선적을 가진 무국적자들이 상당수 있다.

한편, 현재 조선적 동포의 입국과 관련해 국회에는 '여권법 일부개정안' 이 계류 중이다. 2017년 3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조선적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완화와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이 주요 골자다. 강창일 의원실 측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이 조선적 동포의 입국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 신설 조항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시사저널, 2017. 8. 18.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941>; 검색일, 2017. 11. 14. 그러나 이러한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으로는 여전히 발급 관청의 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문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조선적(朝鮮籍)'(무국적 동포) 제외  
무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도 거주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 외국에 체류 내지 영주하는 한민족으로, 조총련 동포도 현재로서는 무국적 동포로 간주된다.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서울대 BK21공익인권법센터, 한국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2001. 6. 15.;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발표논문집(서울; BK21공익인권법센터);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152면. 년도, 출판사?) 물론 이와 같이 무국적자로 간주되는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국적을 변경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를 걱정하여 그 나라 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주로 구 소련 지역 동포들-, 때로는 그 나라 국적으로 변경하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에 영주하면서도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주로 일본-. 이 두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에 해당하나, 이들에 대한 규정이 누락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의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는 '국적'의 유무에 따라 재외동포로서의 자격 여부에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귀환권조차도 박탈당한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에는 여전히 귀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Город-побратим Ансан поздрав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Делегация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побратима Ансана 8 сентября преподнесла творческий подар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на его 136-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ыступили взрывные барабанщики и лиричные вокалисты, которых поддерживали местные артисты.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Ансан отмечают 15-летие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 этой дате приурочили несколько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 этот раз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и артис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нсана во главе с его директором Ким Бон Сик.

Утром 8 сентября 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праздничном шествии, пройдя в колонне дружбы. А вечером барабанщики, танцоры и вокалист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знакомили сахалинцев с разнообразной и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ой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ью.

На смену гостям на сцену выход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Сюрприз» центра «Мечта»,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родами строятся на взаимном уважении и желании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как здорово, что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 тольк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о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ах. Благодаря общим усилия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двум городам удалось ста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близкими со всеми качествами городов-побратимов,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катерина Пономаренко.



## В Холмск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15 сентября Приморский бульвар Холмска примет и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Инициатора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Холм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мест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шедшие на фестиваль смогут побывать на ярмарке и выставке "Грани Востока", рассказывающей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сет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посостязаться в борьбе "Сиры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ах и забавах.

Кроме того, вниманию холмчан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в 12 часов.

В случае непогод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гастро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Оркестр,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йду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даст два концер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Гастроли островной части эт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состава продлятся с 13 по 18 сентября. За это время ребята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дадут два концерта в Сеуле и городе Канни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м центр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Это будет второе совме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ма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дети двух стран дважды выступили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В Южную Корею отправится 31 юный музыкант. Это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

кестра. Все они обучаются в дет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ах нашей области. Многие из этих ребят уже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лауреатами различн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и фестивалей. Дирижировать оркестром от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будет Тигран Ахназарян.

Напомним, что больше года назад — в мае 2017 года,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перв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фондом "Надежда"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ый обмен музыкантами и созда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проекты,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мин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 Откуда взялись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Спецкор газе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изучила историю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на примере своей семь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35)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4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есть и мои родственники. Как они там оказались? Раньше меня этот вопрос особенно не волновал. Покопаться в своем прошлом я решила только сейчас, когда поехала знакомить 11-летнюю дочь с наше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родней.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 ВОЗВРАЩЕНИЕ

В 1989-ом границы открыли и дед с бабушкой поеха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Японию. Ко Сан Сай хотел найти и отблагодарить того корейца-«почтальона», но он уже умер.

Добравшись в Корею, дед, волнуясь, шагнул по родной деревне. Вот знакомая улица. Вот поворот к дому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А вот и сам дом... Такой же как и в 1943 году, когда деда уводили отсюда японские военные. Низкая, вросшая в землю лачуга, с кое-как выбеленными стенами и покосившейся крышей. К радости Ко Сан Сая его старший брат был еще жив.

Ко Сан Сай умер в 1994 году. Его похоронили рядом с Ударным — в Углегорске. Бабушка уехала в Корею по гос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Власти выделили ей небольшую комнату в квартире гостиничного типа. Но жила она там не одна, к ней подселили такую же сахалинскую кореянку. Три года женщины уживались с трудо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атерина забрала мать обратно на Сахалин. Бабушка доживала последние дни в окружении любящ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Она скончалась в 2007 году.



Могильный холм семьи 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родных, дед бы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умным и добрым человеком. Очень любил внуков, баловал их. Бабушка была другой. Более строгой,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Дети не смели перечить матери.

Вообще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еще лет 20-25 назад были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ы, что мало кто из детей перечил родителям. И в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ьях дети называют родителей на «вы». Моя восьмилетняя племянница Катя никогда не скажет отцу и матери — «ты». Так не принято.

Мне рассказывали, как в 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лет 20 назад дочь вышла замуж за якута. Ее отец рвал и метал, грозился отречься от нерадивой наследницы. Много лет он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с дочерью и не приглашал в гости. Правда, к старости, сказывают, смирился и даже полюбил зятя.

### ПОЧЕМУ СССР ДОЛГО НЕ ПОЗВОЛЯЛ КОРЕЙЦАМ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Об этом я спросила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ю Дин.

— Юлия, изучая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я не могу понять, почему мои

предки не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после разгрома японцев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 Тогда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причин. Да, сначала корейцев хотели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вместе с японцами, которые выезжали с Сахалина вплоть до 1949 года. Но одумались. Поскольку в СССР необходимы были рабочие руки. После войны работоспособных мужчин не хватало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 А тут корейцы, привыкшие трудиться на самом тяжел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Так репатриацию корейцев отложили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В 1950 году в Корее разразилась война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 И вопрос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подвис?

— Да. Причем гражданства у них не было. В 1951 году Япония лишила их свое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отому что Корея перестала быть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ей. 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тот период граждан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л только по крови. То есть родители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гражданам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люс возникла еще одна проблема. Сахалин был особой пограничной зоной. Иностранцам запрещали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милиции передвигаться даже из одного поселка в другой.

— Когда границу для корейцев открыли?

— В 1990 году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установи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тогда же произошл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родственников. 120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на боинге Korean Air улетели в Сеул повид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И вот уже после этого сахалинцам разрешили у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Правда, уезжали только те, кого могли у себя приюти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нятно, что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проживание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было денег. В 2000 году нача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деньг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с Сахалина.

— Но выезжать могли не все? Только те, кто родился до 1945 года?

—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В этот день Япония объявила о своей капитуляции. (Подписание акта состоялось 2 сентября 1945, — Авт.).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постановили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что люди, родившие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считаются корейцам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квартиру и пенсию, которую выплачивает Южная Корея. Родившиеся после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считаются вторым поколением, и их репатриация официально не проводится. Но никто не препятствует им переезжать за свои деньги.

— В дате —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мне видится некая трагедия. Да, родители уехали с Сахалина на родину, но их дети остались на острове. Мой дед Ко Сан Са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мер, бабушка поехала в Корею одна. Ее поселили в квартире с чужой женщиной, такой же переселенкой. Но как можно ужить в старости с незнакомым человеком? Да и что ей было делать там без детей?

— Это проблема, которая сейчас у нас в полный рост встает. Многие возмущаются именно такой половинчатой репатриацией. Но когда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садилис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такие условия показались всем адекватными. Ведь это был первый шаг к репатри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на мой взгляд, был чистый расчет. Проще и дешевле вывезти стариков, чем всю диаспору.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КП, 21 августа 2018 г.)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военный парад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КНДР

9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и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военный парад по случаю 70-й годовщины образования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наблюдал за парадом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тра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яда стран, прибывшими в Пхеньян на праздник.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член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литбюро ЦК КПК Ли Чжаньшу и спикер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На этот раз Ким Чен Ын не произносил никаких речей, вместо него к участникам парада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Ким Ён Нам, который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не затрагивая тему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о имеющимся данным, в пар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 тыс.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единиц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на парад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были, по площади провезли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KN-06 класса земля-воздух.

## Белый дом: Лидер КНДР предложил президенту США провести очередной саммит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лучил письмо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овести очередной самми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регулярном брифинге в Вашингтон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елого дома Сара Сандерс,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это было чрезвычайно тёплым, чрезвычайно позитивное письмо». Оно подтвердило готовность Ким Чон Ына продолжать переговоры и развивать тот прогресс, который был достигнут после первой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При этом Сандерс отказалась раскрывать подроб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исьма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Пхеньяна, не назвав также возможной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инфицированный вирусом MERS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и борьбе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фициально подтвердили наличие инфицированн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ом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синдрома MERS. 61-летний житель Сеула находился в Кувейте, а 7 сентября через Объединё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Больной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 взяты под контроль лица, которые контактировали с больным, включая соседей по самолёту, cabinный экипаж, сотрудников аэропорта, врачей и членов семей. Анализы взяты у 20 человек,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зившихся возрастет. Предыдущая эпидемия MERS бушевала в РК в 2015 году. Тогда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у 186 человек, 38 из которых умерли. 16.752 человека прошли карантин. Несмотря 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ертв, эпидемия 2015 года обернулась для страны серьёз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Чхэ Су Ына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на Венециа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Чхэ Су Ына Buddy VR, приглашённый на 75-й Венеци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Best VR Experience.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фильм и другие 30 работ в формате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боролись за три награды - Best VR Experience, Best VR Story, Best VR. В итог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ошёл в число лучших. Работа режиссёра Чхэ Су Ына создана на основе голливудского аним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Реальная белка». Сюжет выстроен вокруг крысы по имени Boddy, которому нужен друг. Зритель становится другом Boddy, участвуя с ним в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иключениях. При этом внедрен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то есть зритель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героем фильма.

## В РК проводятся Всемирные игры пожарных

10 сентября в городе Чху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хунхон-Пукто начались Всемирные игры пожарных World Firefighters Games. Они продлятся восемь дней.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К второй раз. Первый раз оно проходило в 2010 году в Тэгу. На этот раз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6.600 человек из 63 стран. Они померяются силами в 75 дисциплинах,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а со шлангом, вождение спецтехник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Игры проводятся с 1990 года.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единства пожарных всего мир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также выставка и симпозиум,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амыми последними трендами в данной сфере.

(RKI)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у "Узоры судьбы"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четвертого тома изда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стровная библиотека",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Долгосрочный изд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стровная библиотека" — детище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ени Кузнецова. Иницирован он был в 2015 году с одной целью — популяр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тех пор городские и школьные библиотек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полнили три книги, изданны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Это "Остров нашего детства", "Счастливый билет в сказку" и "Сахалинские Робинзоны". Четвертый сборник под названием "Узоры судьбы", презентация которого прошла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твор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без которых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оврем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хали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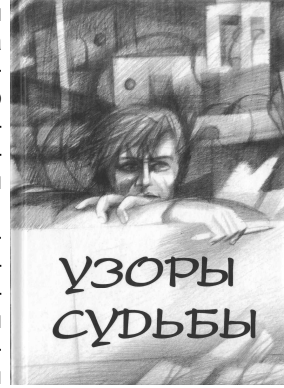
— Сборник, с которым мы вас знакомим сегодня, посвящен выдающимся сахалинским литераторам, — сказала, открывая презентацию,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Ольга Бородина. — Мы постарались выбрать лучшие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какое богатое наследие нам оставлено.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ей в области —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илу своей непростой, разделенной в XX век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провергают клипированную формулу: "Запад есть Запад, Восток есть Восток, не встретиться им никогда...". Они глубоко впитали две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два языка, ощущая себя полноправными детьм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 Когда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борнике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я вначале почувствовал недоумение, — признался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поэт и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Ян,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в книгу. — Мы здесь живем единой семьей, и я до сих пор ощущал себя чуть-чуть корейским писателем, чуть-чуть русским. Но потом подумал — а почему бы и нет? Сахалин — это не просто территория, где мы живем, это наше обще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слились культуры Кореи, Японии, России, где соприкасаются души, у которых н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сборник "Узоры судьбы", помимо Сергея Яна,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еще четырех авторов. Это Анатолий Ким, Ким Цын Сон, Роман Хе и Чан Тэхо. Такой отбор не случаен, поскольку творчество именно этих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дает полноц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На страницах сборника читателям откроется, во-первых, как себя ощущают люди двух отечеств, прекрасно владеющи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и культурой, которые наслаиваются на корейскую ментальность, во-вторых, как менялась окружающая жизнь, чт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лучило отклик в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ни родились и жили на советском Сахалине, учились в советских школах и вузах, но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и о своих корнях, или же их память прорастала с годами, заставляя рождать удивительной проникновенности строки.

У каждого автора сборника "Узоры судьбы" своя изюминка. Поэт и драматург Ким Цын Сон писал в ос-



новн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ля 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стиля характерно сочетание тонкого лиризма и философской глубины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ахалинская осень"). Всероссийскую известность получили романы Анатолия Кима, а в сборник "Узоры судьбы" вошли его рассказы, посвященные послево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со всеми тяготами и надеждам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м с японским и рус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из цикла "Бродяги Сахалина"). Роман Хе — толкователь и продолжатель древнекорейско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жанра сиджо, которого музыкальность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рики подвигла к созданию самобытных романсов. Сергей Ян, мудрец-странник, размышляет об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корейского поколения "разделенных и разлученных" в стихах и прозе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ез",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и др.). Чан Тэхо заявил о себе в качестве поэта-песенника.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юзе с композитором Сергеем Вербицким у него появились песни о любви к Сахалину, Курилам и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сполняют островные вокалисты на бардовских фестивалях.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и, которую провел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Лидия Кисенкова, потенциальные читатели сборника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как с его авторами, так и с теми, кто помогал его издавать. На сцену выходили и читали нов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ергея Яна и Чан Тэхо. Порадовал слушателей изящным исполнением своих песен-стихов Роман Хе. Не меньше удовольствия гостям подарили Лидия Кисенкова, исполнившая свою песню на стихи Сергея Яна, и популярная островная певица Александра Краснова с песней на стихи Чана Тэхо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Сахалин".

Настоящим сюрпризом стало появление на сцене старшего сына Ким Цын Сона. Патриарху корей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поэзии 11 сентября исполнилось 100 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 Владимир Сон приех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 Москвы, чтобы посетить могилу своего отца.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его пригласила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е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Ким Цын Сона проч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правда, в записи, поскольку находится в отъезде.

Кстати о записях. По уже заведенной (и оправданной читательским вниманием) традиции книжный вариант сборника выходи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аудиоаналогом. В этот раз прозу известного писател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которая открывает "Узоры судьбы", до слушателей донесли голо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мастер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народных артистов России Клары Кисенковой и Владимира Абашева. Участники презентаци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дарили этим замечательным артистам свои аплодисменты.

Не меньше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 будущих читателей получил один из интересней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Дю Мен Су, в творчестве которого осмыс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удеб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 Мн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поработать над созданием этой прекрасной книги. Когда я открыл ее и прочел цикл рассказов "Бродяги Сахалина", мне сразу вспомнилось детство. Как будто это списано с моей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 Дю Мен Су. — Поэтому и иллюстрации для книги родились легко. Я рад, что у меня получилось передать в них тепло своей душ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лавной аудиторией серии "Островная библиотека" называют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ет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книга "Узоры судьбы" привлечет внимание всех, кому интересно твор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деловыми круг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ра Щербина, выступая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делов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ов, предложила бизнесменам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ключиться в реализацию нов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на полях IV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литическ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ереживает подъем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идит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иоритетов своей политики.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обсуждали,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ют у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Корее и у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в России, решали, какие отрасли могут стать основой для прорыва в торгово-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ажн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грает развит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отметил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Вера Щербин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а она. –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эта страна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в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м обороте региона. В 2017 году объем взаимных 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и корейским бизнесом составил 5,1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этого года – 2,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Это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ходят в число основных импорт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нефти 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На 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акже поставляет уголь, рыбу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ахалинские и куриль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купа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еханические устройства, черные металл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суда и лодки, полимерные материалы. Развивается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ъем накопленных прямых корейских вложений в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20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основном, в так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оптовая торговля, геологоразведка.

– Создана прочная основа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Но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исчерпан.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открыв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наращи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ервая – «Южная»,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проект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торая, нацеленная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Ее центром стал одноимен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ретья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Здесь основной упор сделан на добычу и переработку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ми так богаты моря, омывающие бере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могут стать резидентами ТЕР, а также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рьезными преференциям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вышению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овершенствуются правовые механизмы, снижа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нагрузка на бизнес.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ривлечении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ее содействие. Уверена, что IV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ридаст импульс реализаци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нгресс-бюро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Благодаря двусторонн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достигнутым на IV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деловой и событийный туриз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новый виток развития.

Документ своими подписями скреп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и директор Ассоци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нгресс-бюро» Алексей Калачев.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нгресс-бюро готово оказывать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регулярную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выставок, ярмарок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делового и событийного туризма.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бизнес-партнеров и туристов.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ссоци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кать к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соорганизаторов учреждения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спонсоров,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

ла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пресс-туры.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нгресс-бюро было создано в ноябре 2017 год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ной отрасли страны, интеграции в мировую индустрию встреч. Среди его учредителей – крупнейший организатор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оч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технологий и инвестиций и 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ортный центр.

Сегодня Ассоциация уже имеет соглашения более чем с десятью российскими регионами.

## «Дети Азии»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Стенды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выставочном павильоне на «Улиц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амках проходящего в эти дни IV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ети Ази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с 8 по 17 февраля,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интерактивном формате.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узнать о видах спорта, сроках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 Нам важно сегодня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круп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бытии.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присоединятся более 20 стран. Свыше 1500 спортсменов вступят в борьбу за медали,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игр «Дети Азии» Владимир Максимов.

У любого желающег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релять из электронного оружия для биатлона,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доске для шорт-трека и забить шайбу в хоккейные ворота.

–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это сложная задача. Мне интересно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умаю, что атмосфера будет такой же захватывающей, как и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 поделился г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авильона Арсений Икамов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Главное место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тведено «Горному воздуху». На стенд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3D-очками, узнать календарь событий на предстоящий сезон и да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озыгрыше ски-пасса.

–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л специальную брошюру, где называются пять причин посетить наши острова зимой и летом. Это и крупней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и зимняя рыбалка, и ледопады,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уризм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Наталья Пахолова.

В этом году стенд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разработ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не только настоящее, но и будущее.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переносит посетителя на курильский остров Итуруп, где появились горнолыжные трассы и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А 3D-очк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катиться по склонам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 Я будто только что побывал на горе, такой всплеск адреналина! Интересные у вас места, хочу обязательно побывать на острове этой зим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ездили мои друзья и остались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 поделился еще один гость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митрий Иванников.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стенда может оставить свое послание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доске, написав пожелание и выбрав наклейки. Помимо этого, у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их стенд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ершить игро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ирту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места,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посетить на остров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ро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риморский и Камчатский края.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инициативные граждане с 11 сентября до 11 октября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гр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свещение;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азмер гранта зависит от объема планируем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оекту и не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и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граждан. Заявка долж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привлечение средств из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или личный вклад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1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й суммы.

В конкурс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лигиоз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и движения; потре-

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объединени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е палаты; товарищества собственников недвижимости; адвокатские и нотариальные палаты; микро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в срок до 11 ок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направить заявочные документы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в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офис 327. Телефон: 8(4242) 670-297.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e.ulyanova@sakhalin.gov.ru.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т до 20 октября.

##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колледже началось обуче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Открытие отделен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оможет решать кадровые вопросы в сахалинских больницах, поликлиниках и диспансер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й профессии сегодня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 новой группе 25 студентов, пока они изучаю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профессии.

– Мне всегда хотелось работать в лаборатории, узнавать по анализам, чем болен пациент. Мне нравится возиться с реактивами, очень люблю химию, поэтому и выбрала это отдел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Анастасия Лобода. – Я из Корсакова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хочу работать в своем районе, у нас не хватает лаборантов.

– Считаю, что это одно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медицине.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опираясь на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врач определяет диагноз, выписывает рецепт. О том, что открывается так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мне рассказала моя учительница химии, и я решила поступать, – поделилась еще одна студентка Валерия Нициевская.

В качеств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ть луч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лабораториях обл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На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ях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ерешло в медицинский колледж после фина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 Мы закупил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микроскопы, они позволяют выполнять широкий круг задач. В аудиториях уже установлены ламинарный, вытяжной, сушильный шкафы. Всего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было выделено более 5,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Лариса Дзюва.

На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группы студентов будут набираться один раз в три года. Сотрудниками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огут стать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финалисты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 сейчас обсуждаются перспектив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ыпускник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из Волгоград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и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ей.

##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ли онлайн-робота, который консультирует по вопросам пенс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Авторы оригинальной компьют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бот, который уже стал доступен пользователям всех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в одном из популярных мессенджеров, дает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актуальны в стране: как изменится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и для кого он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им, как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хранятся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функцией,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доступ в мессенджер What's App. Далее нужно отправить на номер +7-914-090-06-33 сообщение с любым текстом и получить в свой адрес инструкцию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получению ответов. Данная функция доступна в любое время суток и я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й.

Одним из разработчиков онлайн-робота, отвечающего на вопросы людей, является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блогер и член резерва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Мака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журналистикой и инновациями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создание подобных роботов и по ряду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направлений, а также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коммерческому сектору, – поделился Сергей Макаров.

– Сегодня молодежь готов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связи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граждан, –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иколай Литус. – В частност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разработчики готовы создать еще одного подобного онлайн-робота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при молодежном парламенте региона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стоянно следящая за поправками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гражданам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김중송 시인 100주년

2018년 9월 11일은 김중송 소련 시인의 100주년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그는 4살때 아버지를, 10살때 어머니를 잃었다. 1937년 모든 극동 고려인들의 운명처럼 스탈린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당한 바다. 우즈베크국립대학교 (사마르칸드)에 입학했지만 졸업하지는 못했다. <레닌 기치>(전 선봉)신문사, 학교 교사, 타쉬켄트조선극장 문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사할린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신문사에서 번역원, 문화부장, 편집국장, 부주필 등으로 하였다. 러시아 작가동맹원이었고 작가동맹 사할린지부 창립자 중 한 분이다. 시와 소설을 한글로 썼는데 러시아 말로 번역된 작품이 책으로 편찬되기도 했다. 러시아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김중송 시인의 작



품은 오늘날까지 재출판되고 있다. 시인은 1973년 55세에 중환으로 별세했다. 김중송 시인의 장남 김 블라지미르가 본사에 전한 시와 자화상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 봄

사월이 다 돼도 하루 건너  
가다가도 되 돌아 오던 겨울,  
오다가도 되 돌아가던 봄날,  
서로 성가시다 몸부림 치더니  
겨울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아쉽다.  
산봉에서 리별의 흰 손수건 내젓네.  
가벼운 바람 타고 깃을쳐 오는 봄  
바다 건너 옛고향 찾아들어  
그림던 이 섬을 정다운 품에 안으니  
말랐던 초목에 삶의 싹 트고  
잠꼬대 하던 벌레들 기지개 켜며  
정서 무뎠던 내 가슴도 시를 읊네.

### 제주에서 세계로 외교부 산하 2개 기관, 제주 이전 기념식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시형)이 오는 10일 제주이전 기념식을 갖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외교부 산하 두 개 공공기관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터전을 마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세계와의 더 많은 소통으로 국익창출의 역량을 키워간다는 의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9월 10일(월) 오전11시 30분부터 열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이전 기념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현 외교부 2차관,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송석연 제주대 총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 등 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두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제주 이전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했다.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5천4백만 내국민과 740만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재외동포재단 등 외교부 산하 2개 기관이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본사를 옮겨오에 따라 당초 예정된 9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정책이 마무리 된 것이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도는 <국제교류와 연수폴리스>를 지향하며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고,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제주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향후 30%까지 구성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등 지역내 유관기관과 국제교류와 관련된 상생발전 방안과 제주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이시형 이사장은 "KF는 제주 본사와 서울 글로벌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그리고 7개 해외사무소를 둔 전국적·세계적인 조직망을 기반으로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게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지역상생과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내국민과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서 새 등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가 지구촌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동포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제주이전을 개시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마무리되었으며, 지역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7일 서울서 개최

### 지구촌 한인 사회 젊은 주역들 한 자리에 모인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슬로건으로 17일부터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 일대서 열려  
경영, 법조, 예술, 의료 등 다분야서 활약 중인 전 세계 24개국 80여명 차세대 리더 참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전 세계 24개국 약 80여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하는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9월 17일(월)부터 21(금)까지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영, 법조, 예술,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해 동 대회를 통해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또, 남북간 평화 무드 속에서 모국과 거주국 간 차세대 동포들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올해 대회 주요 참가자로는 번 얼 아르헨티나 현대화부 공공혁신 최고책임자 겸 디텔라 대학교 교수, 김하나 토론토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관장, 강태석 Taeseok Kang LT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아공 최초 한인 공인 회계사로 현지 아디다스의 부장 회계사인 구현동, 노르웨이 입양동포이자 오슬로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오영수 등이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前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외교부장관 주최 환영만찬과 참가자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FLC 토크콘서트, FLC 세계시민포럼과 국내 차세대 전문가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 시민으로서 차세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19일 오전에는 과주 DMZ를 방문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문화 체험, 지역별 네트워크, 체육대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1일 국무총리 공관예방과 오찬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이끌 주역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가 차세대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우리말로 깨달다]

### 너무 좋아해요

'너무'라는 단어는 원래 부정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덥다'라든지, '너무 이상하다'라든지, '너무 싫다'라는 말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는 부정과 호응을 이루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표현에서 '너무'를 긍정적인 내용과 호응을 시키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좋아한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예뻐'라는 말도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너무'라는 말은 넘다와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넘다'의 어간에 '우'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넘다가 부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마주라는 말도 '맞다'에 '우'가 붙어서 생긴 말입니다. 자주라는 말도 '자다'에서 온 말이지요. 다른 부사의 어원도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말도 많습니다. '아주'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매우'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는 왜 부정적인 말과 호응을 할까요? 그것은 너무가 넘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지나쳤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넘쳐버렸으니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지나치다는 말이나 넘친다는 말은 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넘치다는 말도 넘다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더운 것이나 추운 것은 너무와 호응이 가능하지만 따뜻하다나 시원하다는 말은 호응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덥고, 추운 것은 힘들어했지만, 따뜻한 거나 시원한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를 써서 의미가 잘 안 통한다면 우리가 원래 좋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의 의미가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라는 말은 다른 말과 호응이 없이 써도 별로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너무 해요.'라는 말이겠지요? 예전에 '너무 합니다.'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정말 애절했습니다.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무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너무'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겁니다. 너무는 지나칠 때 뿐 아니라 이렇게 못 미쳤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은 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사랑해요'라는 표현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요'라는 말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가 이상한가요?

이제는 지나친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과잉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듯도 합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감정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너무'가 쓰이면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 형용사의 경우는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강조의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따뜻하다'나 '시원하다'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습니다. 봄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는 말은 이상하겠지만, 겨울에 커피가 너무 따뜻하다는 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이면 시원한 곳에 가면 너무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너무'라는 말을 보면서 지나쳐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좋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Центральны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ыступит с концертами на Курилах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23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пасской башни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тся концерты Центрального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 ведуще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и. Начальник оркестра —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й Дурыгин.

Концерты пройдут:

22 сентября в 11.30 — в Курильске в районной ЦКС

23 сентября в 11.00 —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23 сентября в 19.00 — в селе Крабовозаводском (ДК "Утро Родины")

Коллектив представляет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музык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 и в гастрольных поездках по всему миру. Многогра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ллектива обусловлена не только исполнительским мастерством, но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ой оркестра, не имеющей аналогов ни в одном военном оркестре мира.

В концерте также участвуют солисты-вокалисты, лауреаты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26 сентября в 19.00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на сце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ККЗ "Октябрь",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 Сахалин бард들, 이투루프에서 최초로 콘서트의 막을 열었다

토요일저녁에 сахалин 바드(음유시인)인 파벨 가브리코브와 김 베니아민이 자작곡해서 부른 노래는 이투루프 주민들로 하여금 반구형 구조물 <이투루프> 앞에 피운 모닥불 주위에 어깨나란히 둘러앉게 했다.

그루원기념 국제 축제 수상자인 김 베니아민 가수는 сахалин 바드 운동의 창시자이다. 벌써 2015년에

그는 그루원 축제와 같은 행사를 сахалин에서도 진행 해볼 생각이었다. 결과 그후 해마다 сахалин에서는 <아포스트로프 - АПОстров> 음악 축제가 열린다. 자작곡\*작사의 가수 - 바드들이 쿠릴에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들은 쿠릴 섬주민들을 위해 오쿠자바, 비소츠키, 로젠바움, 갈리치의 노래를 불렀다. 관람자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이들 바드가 스스로 작곡한 노래와 타 유명 바드들의 노래에 푹 빠졌다.

쿠릴에는 바드 노래에 열광하는 팬들의 수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중앙 클럽 제도 지도자인 그리고리 마노хин이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행사는 향후 이투루프 9월 전통축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붉은 등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인기있는 сахалин 가수들을 초대하는 것은 이 지역 지도자들의 아이디어였다.

## Сахалинские барды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концерт на Итуруп

Субботним вечером авторская песня в исполн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бардов Павла Гаврикова и Вениамина Кима добралась до курильчан, собрав их тесным кругом у костра возле купола "Итуруп".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бардов стал лауреа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имени Грушина Вениамин Ким. Еще в 2015 году он захотел сделать нечто подобное Грушин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на Сахалине. Эта идея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С тех пор каждый год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одится музы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АПОстров". На Курилах барды впервые.

Для курильчан прозвучали песни Окуджавы и Высоцкого, Розембаума и Галича. Живое исполнение своих и чужих песен не оставило равнодушным никого.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любителей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на Курилах еще нет, но он начина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Как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й клубной системы Григорий Манохин, это был пробный шаг к созданию сентябрь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на Итуруп. Идея пригласить популяр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принадлежит руководителям района, сообщает

газета "Красный маяк".

## 아니와에서 대중 아침체조 시작

아니와에서 대중 아침체조하기 운동이 시작됐다. 주최측은 당면한 지역중앙도시건설 132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단체 행정부 총무인 알렉세이 바얀진의 말에 따르면 운동은 제2호 학교내 경기장에서 실시된다. <сахалин 스포츠 연합>과 <운동의 도시> 지방단체기관이 소련시절에 유행했던 이런 행사를 재개했다.

프로젝트는 5개의 сахалин 도시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하여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6:30에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민들이 활력을 충전받는다. 이 운동 참여자는 총 600명 이상에 달한다. 아침체조 주최측의 소견으로 아주 좋은 성적이라는데.

운동을 몇번이나 해 본 사람들은 공동체조가 아주 좋다고 말한다. 운동을 그만하기로 한 자는 아직 없다.

## В Аниве стартовали массовые утренние зарядки

В Аниве стартовали массовые утренние зарядки. Новое спортивное начин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урочили к грядущему 132-летию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Как рассказал управляющий дел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ей Баяндин,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на стадионе школы № 2. Реанимировали популярное во времен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юз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Проек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ртовал в пяти городах Сахалина. Каждый понедельник, среду и пятницу в 06:30 заряжаются энергией жители Анивы,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щее число занимающихся более 600 человек. Организаторы утренних зарядок считают это прекрас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Те же, кто посетил уже несколько занятий, считают, что совместная зарядка -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Пока никто не намерен бросать начинание.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bilet.sakh.com

#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